

정치투쟁으로 나선 문화운동

문화동향

문화운동계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가는 정부의 전면적·법적 탄압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미 모든 문화활동은 법적·제도적 사전심의를 의해 원칙적으로 제약되고 있으며, 자의적인 법 적용에 의해 진보적인 문화활동가들은 구속·수배되고 있다.

문화운동계의 현재 전시화된 투쟁으로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 축의 고소장 발부와 정태춘씨의 불법음반 배포투쟁, 민예총의 연대투쟁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4월15, 16일 본교에서 상영한 바 있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에 대해 대공에서는 영화감정서를 발표하고, 이 영화를 '이적

창작물 탄압에 대한 문화단체 대응

표현물'로 규정, 전국상영중에도 계속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왔다. 이를 규탄하는 영화인들의 '공개감정서사'가 지난 6일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치루졌다.

이에 '어머니, 당신의 아들' 영화 제작소 '청년'은 탄압분쇄를 위한 영화인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예총' 산하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 대공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었다.

또한 오는 6월8일부터 시행에

정태춘씨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투쟁상황들을 공동대처해 가고 있는 '민예총'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4월28일 한양대 '해방맞이' 공연중 민주문화예술탄압과 강경대열사 사건에 항의하며 문호근 대변인, 김용태 사무총장, 임택 사무처장등 8명이 사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는 예술운동에 대한 탄압분쇄가 민주적인 정권으로 교체되기 전에는 불가능함을 각인하고,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법국민 대책회의'에 참석, 재야 사회단체와도 연대하고 있다. 공연장에 대한

원천봉쇄, 공권력 투입등 6공들이 극에 달한 문화운동 탄압은 위기의식을 느낀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폭력적 탄압에 맞선 문화운동전열의 투쟁은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이 땅의 진정한 민족·민중문화를 말살시키는 국가보안법, 개악된 음반법, 영화법등 모든 악법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 (이금주 기자)

음반탄압 맞서 정태춘씨 강경 투쟁 단체간 연대 더욱 강고히 맺어



신학철 작 '그대의 초상'

붓으로 다진 통일이지

민미협 주최 '통일전' 열려 23일 전시후 전국 순회예정

민중에 의한 통일운동의 고양을 열망하는 작업의 결실인 '통일전'이 인사동 '그림마당' 민에서 열리고 있다. '민족미술협회의 통일미술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주로 젊은 청년작가 15인의 작품을 선보인 1부 전시가 오는 16일까지 계속된다.

통일운동과 현실고발에 전제조건을 둔 이번 전시회에서 최민화의 '6월항쟁'은 특히 눈에 띈다. 전시장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두루마리 미완성 그림위에 작가는 전신도중에도 작업을 계속하는데, 이는 '그림이 미완성인것은 지난 6월 항쟁이 아직 미완성인 때문'이라는 작가의 항거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아작은 실험적 작업인 정치포스터에 주력해온 김환영은 새로운 작품 '앞으로'에서 기존의 다소 만화적이고 거칠었던 점을 보완해 한결 다듬어진 형상력과 구성력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분단지역의 풍경을 현상적으로 재현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다가간 '분단풍경(이정희)' '우리의 상공에는 항상 미국이 있다(강요배)'등 대부분 작품이 통일운동과 민중운동의 결합위에 예술적 깊이를 담고있다.

앞으로 약 30인의 작가가 참여할 2부 전시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이후 광주에서 '광주·전남 미술인 공동체'와 연합전시를 벌이는등 전국순회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김미령 기자)

故 강경대열사 추모시

어머니, 나 이제 일어날래요

어머니!
여긴 너무 추워요
여긴 너무 어두워요
제가 왜 이런 곳에 있을까요?
일어나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
친구들에게 달려가야 하는데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나야 하는데
난 다시 일어나 싸워야 하는데
아무리 힘을 넣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남의 몸처럼 어느 한 곳 움직일 수 없어요
어머니!
전 죽은 걸까요?

어머니!
저는 조금 알아요
아주 조금 알아요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형들에게
그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사주하였는가를
저 사람들은

영원히 맺어 먹고 등쳐 먹으려는거예요
작년 만들어낸 민자당으로
앞으로 만들어낸 내각제로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식민지로, 영원히
순결한 우리 민족을 식민지 백성으로, 영원히
맺어 먹으려는 거예요
등쳐 먹으려는 거예요

어머니!
저기 보이는 선배형들, 누나들을 불러 주세요
등 보이며 걸어가는 친구들을 소리쳐 불러주세요
저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친구들과 함께 싸워야 돼요.
제발 그렇게 서 있지말고
제발 그렇게 서서거리지말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달라고
제발 큰소리로 불러주세요
제발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어머니!
난 너무 아파요
흰 헬멧을 쓰고 청자켓을 입은 형들이
쇠파이프로 제 머리를 후렷후렷
희고 가냘픈 제 목을 휘감았어요
쓰러진 제 몸을 구두발로 마구 짓밟았어요
움추린 제 배를 마구 걷어차았어요
두개골이 박살나고
목이 꺾어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타질 때
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
너무 아파
너무 무서워
살려 달라고, 살려 달라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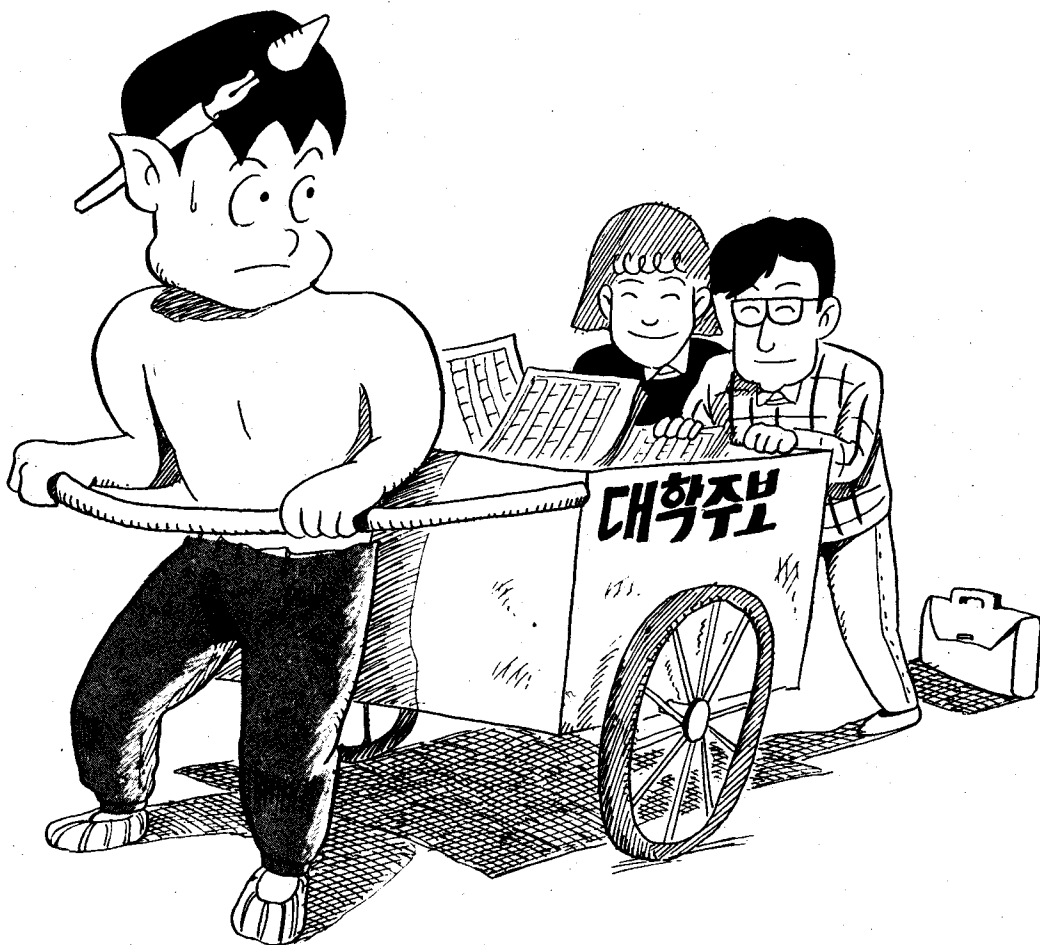
어머니!
쇠파이프를 든 그 무서운 형들은
절 왜 그렇게 때렸을까요?
제가 왜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난 우리대표
총학생회장님이 왜 징역가야 하는냐고
어서 내 놓으라고 한 것 뿐인데
좋은 형, 누나들
마구 잡아 가두는 사람들 물러가라고
일하는 사람, 맘 돌리는 사람들
뺏어 먹고 등쳐 먹는 사람들 물러가라고
물러가라고 외친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그토록 아프게 맞아야 했나요?
그토록 무섭게 맞아야 했나요?

어머니!
여기에서 혼자 제때가엔
너무 추워요
너무 어두워요
언제까지나 여기에 누워있을 수 없어요
나 이제 일어날래요
일어나 친구들에게 달려갈래요

보세요, 어머니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눈꺼풀이 조금씩 들러지게 시작하네요
손을 잡아주세요
잡아 세워주세요
잡아 세워주지만 한다면
조금만 부축해주기만 한다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나 친구들에게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애요
보세요, 어머니!
팔에 다리에 점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보세요, 어머니
전, 전 죽지 않았어요 어머니!

<한빛 문학회>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학주보는 기자과 독자가 함께 만듭니다!



경희인의 理想과 思考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학주보는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 말해봅시다(200자 원고지 4-6매)
'말해봅시다'는 교수·학생·직원등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의 크고작은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 합니다.
- 교수논단(200자 원고지 20-40매)
전임이상 교원이 자신의 학술적 성과를 발표하는 난입니다.
- 독자논단(200자 원고지 20-40매)
학생의 연구성과나 교수·직원·학생이 학내의 문제제에 대한 심층적분석 혹은 시사적인 주의주장을 펴는 난입니다.
- 독자문예
경희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난으로 자신의 문학적 소양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시:(매수제한없음) ·수필:(200자 원고지 10-15매)
·비평:(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소설:(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4-5회 연재본
- 사건·사고 제보및 정보 서비스
학내외적으로 한 번쯤 대학주보가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사안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자료및 정보를 최대한 서비스해 드립니다.(자료의 성격상 반출이 금지되거나 열람만 가능한 것도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고는 본사편집실로 직접 제출해 주시고, 직접 찾아오실 수 없을 경우 전화나 Fax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주·야간) 963-5849, 961-0093~5
수원캠퍼스(주간) (02)745-5702 (교한:2055-6,2860)
(0331)280-2055-6, 2860
Fax 서울캠퍼스 963-5849 수원캠퍼스(0331)280-2238